



저는 조정희 도로테아 수녀입니다. 어릴 때, 혼수상태에 있던 외할머니께서 갑자기 일어나 앉으시며 “성모 마리아님께서 왕림하시다니...” 하며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가족에게 신앙의 씨앗을 뿌려 주신 마리아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1인 제게 ‘갈매기의 꿈’ 을 주며 ‘늘 새롭게 되어라’ 던 오빠의, 군대에서의 죽음이 저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했고, 지금의 제가 있게 했다고 느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고, 어머니이셨고 영원에 대한 갈망이 크셨던 마더 씨튼께 감동을 받아 늦깎이인 저를 받아들여준 수녀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성 요셉여고와 소명 여고에 국어 교사로 파견 받아 두 관구 수녀님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완벽해지려 할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특히 마지막 해 고3 담임을 하며 두려움을 내어맡기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면 하느님께서 넉넉히 채워 주신다는 귀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 후 마가렛 지역 아동센터에서 초 중학생들을 만나고 중문 본당에서 다양한 교우들을 만



난 후 조선대 병원 원목 수녀로 지내며 환우들과 보호자들, 교우들의 진실한 삶의 이야기들 들으며 숙연해지곤 합니다. 매일의 삶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느끼며 더욱 소중해지고, 그 날 멋진 것이 있으면 가능한 한 그 날 즐기고 잠자리에 들러 노력하며, 요즘은 매일 성경을 읽으며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적고, 그 날 감사하는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기록할수록 감사한 것이 더 많고, 경청을 잘 하지 못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순간을 성찰하면 다시 시작할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 또 감사하게 됩니다. 혼자 본당 사도직을 하는 수녀님과 짧은 시간의 만남이지만 슬직하게 나누고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자리에 있지만 서로를 가슴에 품고 축복하며 기도 안에서 기억

하는 것도 얼마나 큰 선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사와 묵주기도, 성체 조배할 때 기도 파트너 수녀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빛을 받아 기쁘고 보람된 하루를 지내시길 기도합니다. 또 ‘수녀님도 날 기억하시겠지?’ 하며 미소짓습니다.



살아갈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고 삶도 죽음도 신비라 여겨지지만, 곁에 계신 당신께 의탁하며 새로운 진리에 마음을 열어두고, 순수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당신을 닮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고 싶습니다.





Hello, I am Sister Cho Jeong Hui (Dorothea). When I was young, my grandmother was in a coma. I remember the day when she suddenly woke up and said “How surprised I am that the Blessed mother comes to me...now I am going to my Father’s home.” Then she passed away to heaven. I thank my grandmother for planting the seed of faith in my family. When I was in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my brother who was in the army died. He had encouraged me to be renewed, giving me the book ‘Jonathan Livingston Seagull’. I believe that his death brought me closer to God and helped make me who I am.

The merciful Lord opened the way and the community accepted me because I was inspired by Mother Seton’s longing for Eternity. So I became a sister of Charity even though I was a latecomer.

I was missioned as a Korean teacher to Saint Joseph Girls’ High School and Somyong Girls’ High School. Living with Korean and U.S sisters in both local communities, I met our Lord who wanted me not to be perfect but to be happy in every moment. In the last year of the school when I had responsibility for third year students, I had a precious experience that God would fill me up when I overcame fears and made an effort to do my best in the power given by Him. Then I worked at Margaret Community Child Care Center with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and at Jungmun Parish



in Jeju-do Island. Now I’m offering pastoral care service in Chosun University Hospital. When listening to the life stories of the patients and caregivers I become serious and thoughtful.

I consider each day as the last day of my life so everyday life is valuable and I try to get over the difficulties in daily life before going to bed. Every day I write the passage of the bible that touched me and

record all that I am thankful for. I am grateful that a sister who is working alone in the parish and I can share community life and advise each other during the short period of time that we meet together.

Also, I believe that it is a gift for us to pray for each other with blessing even if we are far away.

When I attend Mass or pray the rosary or stay in adoration, I remember my prayer partner and pray for her to have a good day in the power and light given by our Lord. Then I think “she also remembers me” and smile.

As life goes on, there are lots of things that I don’t understand, both life and death are mysterious. I keep trusting my Lord who stands by me and opens my heart to the Truth. Asking the

Lord for the grace that I can follow as He prayed on the cross; I want to take a step forward as a sister in pure and great faith.

